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2:6-16]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시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문맥-복음은 어리석음의 메시지입니다! 설교자들은 약하고 멸시받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 모든 교활함으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신성한 지혜는 신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지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을 거부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 기술, 사회학, 심리학 등은 이런 것만으로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분께서는 각 사람을 위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으나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분께서는 온갖 기사를 행하셨으나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필요에 대한 말씀을 갖고 계셨으나 그들의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인간 지혜의 대한 기록은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원으로부터 온 은밀하고 감취진 지혜입니다.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피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0-12). 6절: 믿는 자마다 참으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자니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거절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욱 그렇습니다. 1인칭 복수형 - 전체적으로 의도적,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불신앙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 64:4)참조. 단순히 미래,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질문에 답변해줍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지 않는 한 결코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의 주”* (고린도전서 2:8) 라는 문구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한 번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 단지 임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저주받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일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깨끗함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감사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상징을 취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11).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며 지식이 무궁하시며 그분에게는 신비도 없고 모략도 그 분을 혼란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단순한 복음 그러나 이해를 넘어서는 깊이, 심오한 진리 그러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주어진 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분의 다스림에 맞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알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미 경험하기 시작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삶을 봅니다!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날카로워지는 명확성과 분별력으로 삶을 이해하십시오. 오늘 너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확실하고 확실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어려움과 의심을 이겨내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하십시오. 삶은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는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모든 지식의 기초이시며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동력이시며 한계가 없는 지혜를 얻고, 지극히 명료한 지각을 얻으며,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빛을 비추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모든 판단의 확실성과 이해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는 분열을 극복하고, 차이점을 정리하고, 완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선택, 결정, 목표는 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고려, 평가 및 평가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영리한 불신자 일지라도 이것을 마음에 품으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13 누가 여호와와 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사야 40:13).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의 요점을 증명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